

# 손명수 제2차관 ‘지자체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 위한 핵심 주체’

## - 9일 17개 시도 화상회의...보행자이륜차 등 분야별 안전대책 점검

□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9일(월) 시·도 교통 담당국장, 국조실, 행안부,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「교통안전 점검회의\*」를 영상으로 개최하고, 보행자, 사업용차량, 이륜차 등 사고 취약분야별 사망자 감소를 위한 시·도별 안전대책을 점검·논의하였다.

\* (참석기관) 국토부, 국조실, 행안부, 경찰청 및 17개 특광역시·도

□ 이 자리에서, 손 차관은 “금년도,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정부,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상반기 사망자가 전년 대비 10% 감소하였지만, 하반기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, “연말까지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정부에서도 “음주운전 상시 단속과 화물차 불법구조변경,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합동 단속 중”이라고 밝히면서,

○ 각 시·도에서는 지방경찰청,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단속·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,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조기개선과 안전속도 5030의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하였다.

□ 또한, 손 차관은 “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, 차량 미끄럼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할도로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”한다면서,

○ “지자체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, 행락철·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,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0. 11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